**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8:37)

한국과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인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과 일상의 삶이 위협을 받지만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역자님들의 강건함을 간구합니다.

지난 기도 편지에서 나눴던 기도제목의 응답들로 감사합니다. 거주비자 2년을 발급받았고, 김치 행사도 잘 마치고 지난 12월 중순부터 올 1월 중순까지 A국에 다녀왔고, 1월 하순에 단체 대표께서 4일간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S국 국경에서 전쟁과 난민문제가 더 시끄러웠는데 G국 국경의 난민들은 국경을 개방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이번주 수요일에 코로나19 양성 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어제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문화원 수업 계획이 잡혔 있었는데 4월 6일 이후로 연기되었고, 오늘까지 확진자가 2명이라고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2020년 한국문화 행사 공모 지원서를 제출하여 지방 도시에 한식 사역 계획을 세웠는데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역 계획을 세웠지만 결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9:18~19)**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도로 교통하며,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내고 강건함으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2020. 3. 13. 김에스더 드림